

고난 받는 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관계성¹⁾ (social relationship)

-아가서 2-4장을 중심으로-

이일레(서울신대)

1. 들어가는 말

아가서 2-4장의 ‘연인들의 이야기’는 파괴된 불안한 사회의 구조 속에서 고난 받는 자와, 그리고 그와 연대감을 갖고 해방을 도모하는 자의 아름다운 행보이다. 이들이 설정해가는 공동체 의식은 우리에게 낙원, 에덴동산(창 2장)으로 귀환이 가능해 보이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²⁾ 아가서 2장 8절 이후의 정원은 고난 받는 여인의 겨울 동산(아 2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가서 2장과 달리 4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미지의 동산이 그려진다. 4장 16절에서 ‘동산’은 열매를 평화롭게 즐길

1) *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5S1A5B5A07041277).

2) K. Butting, *Die Buchstaben werden sich noch wundern*, (Erev-Rav 1998), 133.

수 있는 ‘열린 동산’으로 표현 된다. 아가서 2장과 4장 사이, 연인들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일까? 지금까지 연구사가 주장하는 것처럼,³⁾ 우리는 본문의 장르를 낭만적인 사랑의 노래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아가서 2장의 정원을 겨울 정원으로 4장의 정원을 ‘열린 동산’으로 이해한다면, ‘연인들’의 어떤 사회적 관계가 작동한 것일까? 여기서 본 연구는 아가서 2-4장이 제시하는 연인들의 관계를 실존적인 고난과 관련하여 다룬다. 고난 받는 자와의 사회적 관계를 진단하며 그 긍정적 기능을 찾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본 논문은 아가서 2-4장을 2장에 나타나는 정원의 모티프와 4장의 ‘정원’(גַּן, 간) 개념을 통하여 창세기 2-4장과 비교 분석한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된 아름다운 동산 에덴은 3장 이후 그들의 불순종과 범죄로 어두운 겨울 동산(창2-4장)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의 에덴동산과 아가서 2장의 정원 사이의 유추는 ‘문 잠긴 폐쇄적인 동산’이다.⁴⁾ 창세기 2장에서 에덴의 주인공들이 그들의 낙원을 상실한 이유를 그들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을까? 낙원의 주인공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사가 죄의 기원에 관한 본문으로만 집중하던 창세기 2-4장에 관한 관점을 넘어서 창세기 2장 18-25절에 나타나는 ‘에제르 크네 그도’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고, 아가서 2-4장과 대화함으로써, 고난 받는 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관계의 기능을 검토한다.

둘째, 아가서 2-4장을 2장 10절의 명령형 동사, “가라”(בָּרַח, 레키)를 통하여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름의 사건과 비교 분석한다. 아가서 2-4장의 청년의 ‘불러냄’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3) K. Butting, 원글: 김영진, 『크투빔 성문서 연구』(한들출판사 2007), 191; 이경숙, 『생존과 희망의 구약성서』, (대한 기독교서회 2014), 205-206.

4) O. Keel, “Deine Blicke sind Tauben. Zur Metaphorik des Hohen Liedes”, Stuttgarter Bibelstudien, Stuttgart 1984, 114-115.

사건을 비교하여, 고난 받는 자의 고난 극복에 대한 적극성과 소극성을 다룬다. 창세기 12장의 경우, 권력을 가진 자의 욕구가 질서와 상식으로 통하는 이집트 땅에서(창 12:12), 사라에 대하여 소유권을 요구하는 파라오(창 12:15)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의 소극적 굴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존적인 고난과 관련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기능하는가? 그러나 이와 달리 아가서 3장에서 고난 앞에서 선 술람미의 탐화(探花)의 행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과 구별된다. 그렇다면 술람미의 탐화(探花)의 행보는 고난과 관련하여 어떻게 기능하는가?

본 연구는 아가서 연인들의 관계와 창세기 아담과 하와와의 관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관계를 ‘유기적 공동체’의 관점에서 파악하며,⁵⁾ 그들의 사회적 관계⁶⁾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밝히며,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 있는 자, 또는 고난 속에서 희망의 결핍이나 미래 상실감에 빠진 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⁷⁾를 다룰 것이다.

2. 아가서 2-4장과 창세기 2-3장과의 대화

아가서 2장에서 정원의 모티프는 여인에 대한 비유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두절된 참담한 상황에 있는 여인을 발견하는 장소를 의미

5) 김영모, 홍금자, 김진아,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고한 출판사 2000), 260.

6) John Patton, *Pastoral Care in Context*, 1993, 185-186; 윌리엄 오스웨이트/이기홍 옮김, 『새로운 사회과학철학』 (한울아카데미 1995), 72; 우석훈, 『나와 너의 사회과학』 (김영사 2011), 72-74; 사회 구성 이론은 사회적 상호 작용이 개인의 실제 구성에 기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7) 앤드류 레스터/신현복 옮김, 『희망의 묵화상담』 (한국 심리 치료 연구소 2003), 152-153; 최옥재 박미은 서미경 전석균 공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2002, 157: 사람은 홀로 살아가갈 수 없다.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속에서 소규모의 친구들, 친척들 또는 동료 집단과 관련되어 살아간다. 물론 크거나 복잡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관계성속에서는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애정과 우정 또는 적개심과 같은 감정 또한 교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환경과 상호 작용 속에 살아가는 환경속의 인간(person-in environment)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 환경간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는 이 관점은 인간 행동을 이해할 때 단선적인 견해에서 벗어나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회 체계이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상호작용은 고난 받는 자에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다.⁸⁾ 아가서에서 술람미의 연인은 술람미를 그녀의 ‘겨울 정원’에서 불러냄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들은 ‘열린 동산’을 구축할 수 있는 행보를 시작한다. 아가서와는 달리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동산 에덴은 3장 이후 그들의 불순종과 범죄로 낙원의 의미를 상실하고(창 4:12), 유혹과 불순종, 그리고 형제 살인의 깊은 상흔이 배여있는 어두운 동산(창 2-4장)으로 달라진다.

창세기 2-4장의 낙원 파괴와 관련하여 에덴의 주인공들에게 어떤 사회적 반작용이 작동한 것일까? 아가서의 사회적 관계는 창세기 2-4장에 나타나는 현상과 어떻게 다른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에제르 케네그도’ 기능을 통한 아담과 하와의 사회적 관계와 아가서에 나타나 있는 ‘불러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여 고난과 위기 가운데 중요하게 작동하는 사회적 관계를 분석해 보자.

1) 창세기 2-3장에 나타나는 동산과 ‘에제르 케네그도’(עֵצֵר קֵנֶגְדּוֹ)

우리는 창세기 1-11장을 원역사로 이해한다. 창세기 원역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인간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한다. 인간의 타락은 구체적으로 범죄행위 심판 구원의 구조 속에 들어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등 네 가지 연결된 이야기 구조 속에 설명되고 있다.⁹⁾ 인간 범죄의 사건과 역사를 추적해가는 원역사 창세기 1-11장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반영하고 있다.¹⁰⁾ 그리고 악과 선에 관한 질문을 인간의 속성과 하나님 구원의 절대성 속에서 밝히고 있다.¹¹⁾ 여기 창세기의 원역사에

8) 마카베오 하 3:19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와 성전 보물의 위협에 처한 상황이 보고되고 있다. 동시에 이스라엘 젊은 여인의 이상한 반응들은 그녀의 일반적인 삶을 역추론하게 한다.

9) 강성열, 『창세기 강해』,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16.

10) A. Schüle, *Die Urgeschichte [Genesis 1-11]*, Züricher Bibelkommentare AT 1.1, TVZ 2009, 11.

11) 윗글, 11; 강성열, 『창세기 강해』,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16.

서 창세기 2장과 3장이 위치는 무엇일까?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창세기 2장의 인간창조(창 2:4b이후)에서 우리는 P자료(창 1장)와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²⁾ 지금까지 연구사는 창세기 2-4장을 죄의 기원에 관한 본문으로 집중해 왔다.¹³⁾ 그리고 창세기 2-3장의 연구와 관련하여 여성 신학적 연구는 신문학 비평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의 본질을 새롭게 규정하고 여성의 역할과 그들의 순위를 회복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¹⁴⁾ 이를 위해 특별히 여성과 남성은 서로 돕는 조력자, ‘에제르 케네그도’로 창조되었다는 구절(창 2:18, 20)에 주목한다.¹⁵⁾ 본 연구는 기존 연구사, 특별히 ‘에제르 케네그도’의 개념이 여성과 남성은 서로 동등한 돕는 조력자이며,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관계에서 돕는 자¹⁶⁾라는 위치 설정에 집중한 여성신학의 견해를 넘어선다. 여성 신학적 관점의 한계에서 벗어나, ‘에제르 케네그도’의 기능이 하나님의 명령과 죄의 기원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창세기 2장의 창조이야기를 살펴보자.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을 지으시고 16-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עֵץ הַדַּעַת טוֹב וָרָע, 우메아쯔 학다아트 토브 바라)에 관하여 설명하고 먹기를 금하는 명령을 내

12) C. 베스터만, 강성열 옮김, 『창세기 주석』, 한들 1998, 32.

13) 윌글, 42; 게르하르트 폰 라드, 한국신학연구소 역, 『창세기』, 한국신학연구소 1983, 86-87; H. Gunkel, M.E. Biddle, trans., *Genesis*,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10-11.

14) D.L. Carmody, *Biblical Woman: Contemporary Reflektions on Scriptural Texts*, Crossroad New York 1988, 9-14; 장상, “여성신학과 창조신학의 의의”, 『여성신학의 과제』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1983), 55; K.D. Sakenfeld, “The Bible and Women: Bane or Blessing?”, *Theology Today*, Vol. XXXII, No. 3 (Theological Princeton Seminary, 1975) 223f. 이경숙, 『생존과 희망의 구약성서』 (대한기독교서회 2014), 130.

15) 이경숙, 윌글, 130; 차준희, 『창세기 다시 보기』 (대한기독교서회 1998), 24-25.

16) 김정우, “창세기 1-3장에 나타난 여성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조명”, 『구약해석학논문집』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153.

린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나 선악과와 관련된 이들의 불순종 사건은 사실상 3장 1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 2장 16-17절에서 선악과 금지 명령과 3장의 불순종의 사건 사이, 2장 18-25절에 다른 스토리가 들어 있다. 창세기 2장 16-17절과 3장 1절의 선악과 사건사이에 들어있는 창세기 2장 18-25절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두 개의 선악과 본문(창 2:16-17; 3:1-24)과 창세기 2장 18-25절 사이에는 어떤 유기적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 본문의 신학적인 위치는 무엇일까? 텍스트 구성이 독자에게 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창세기 2장 18절은 이렇게 시작 한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의 창조 후 피조물에 관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일곱 번의 표현과 달리(창 1장), 사람의 상황에 관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창 2:18a)라고 하나님의 의중을 표현한다. 그리고 나서 2장 18b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그에게 어울리는 돕는 자’(עֹזֵר כְּנֶפֶשׁ, 에제르 케네그도)를 지으신다(창 2:18b). 여기서 ‘돕는 자’ 혹은 ‘돕는 배필’(עֹזֵר, 에제르)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도움을 언급할 때 쓰는 말이다(출 18:4; 신 33:7; 시 33:12; 121:1등).¹⁷⁾ 그러나 이와는 달리 사람의 도움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돕는 배필’에 관한 언급은 창세기 2장 18절 처음 나타난다. ‘돕는 자’를 창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1장 26절 인간창조의 내용과 비교 연결된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 ‘돕는 자’를 지으심은 사람의 지금의 상태(current state)가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⁸⁾ 이와 관련하여 고든 웬함은 그의 주석서에서 사람들의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간은 인

17) 차준희, *읽글*, 25.

18) H. Gunkel, *읽글*, 11.

간 자신의 힘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피차 돕는 자가 필요하다고 이해한다.¹⁹⁾ 이를 위한 근거로 그는 복합전치사구 ‘그에게 어울리는’(הַיְהוֹדֵךְ, 케네그도)의 표현을 보완성의 개념으로 이해하며 제시한다.²⁰⁾

창세기 2장 18-25절의 ‘돕는 자’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두 개의 선악과 본문(창 2:16-17; 3:1-24)사이에 위치함으로 불순종하는 인간의 죄와 인간의 ‘돕는 자’의 기능이 서로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한다. 다시 말하면 세 개의 본문들의 구성하고 있는 특별한 구조를 통해서 두 가지 신학적인 주제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창세기 3장 1절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에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로 시작한다.²¹⁾ 히브리어 본문은 전치사(וּלְ, 민)를 통하여 최상급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장 간교한 뱀은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한다. 이 장면에서 주연은 뱀과 여자이다. 아담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상황 까지 여자와 아담의 대화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 창세기 2-4장에서 에덴의 주인공들이 ‘관찰의 대상’으로서(Anschauungsobjekt) 뱀의 유혹에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사회적 소극적인 관계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에게 어울리는 돕는 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담에게 여자가 ‘그에게 어울리는 돕는 자’인 것처럼(창 2:18), 뱀의 유혹 앞에 서있는 여자에게 아담은 ‘여자에게 어울리는 돕는 자’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뱀의 유혹 앞에 ‘여자에게 어울리는 여자를 돕는 자’ 아담은 하나님의 지으신 ‘돕는 자’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뱀의 유혹 앞에 ‘에제르 케네그도’의 기능을 상실되고 있다. 유

19) 고든 웬함, 『창세기 1-15』, WBC 1, 184; C. 베스터만, 강성열 옮김, 『창세기 주석』, 한들 1998, 44-45; 게르하르트 폰 라트, 한국신학연구소 역, 『창세기』, 한국신학연구소 1983, 86-87; H. Gunkel, M.E. Biddle, trans., *Genesis*,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11.

20) 고든 웬함, *위글*, 185.

21) C. 베스터만, *위글*, 32.

혹과 불순종의 사건 앞에 ‘돕는 자’의 기능은,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사회적 관계는 뱀의 유혹으로 부터 서로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돕는 자’의 기능은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관계의 순기능을 의미하며 에덴동산의 위기에서 서로를 도와 위기로부터 헤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다.

우리는 창세기 2-3장의 편집 구조 분석을 통해서 낙원의 상실과 ‘돕는 자’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돕는 자’의 기능 상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부적합하게 작동되고 있다. 창세기 2-3장에 나타나는 ‘에제르 케네그도’의 기능은 뱀의 유혹이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위기의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회적 관계의 특징으로 작동되어야 할 ‘에제르 케네그도’ 기능 상실은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된 아름다운 동산 에덴은 ‘돕는 자’의 기능 상실로 인하여 3장 이후 불순종과 범죄로 낙원의 의미를 상실하고(창 4:12), 유혹과 불순종, 그리고 형제 살인의 깊은 상흔이 베여있는 어두운 동산(창 2-4장)으로 바뀐다.

2) 아가서 2장에 나타나는 동산의 모티프와 ‘레키’(לֵקִי)

18세기 이후 아가서의 알레고리적 해석이 그 설득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²²⁾ 아가서에 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그 그늘 아래서 주로 진행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알레고리적 해석과 완전한 작별을 선언한 연구방법은 아가서를 에로티시즘의 교향곡으로 보는데 집중한다.²³⁾

22) 이경숙, 윗글, 203; 이경숙은 그의 연구 논문에서 18세기 이후 아가서의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인정하는 학자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3) 윗글, 205-206; Goulder, Michael D. *The Song of Fourteen Songs*, JSOT 36, (Sheffield 1986), 79-80; Roland E. Murphy/ O. Carm, *The Song of Songs*, (Fortress Press 1990), 41; 박지은, "이상한 여자를 찾아서: 아가와 잠언의 여성읽기를 통한 아원론적 여성관의 재조명", 「구약논단」, 47집 (2013년 2월).

이 기존 연구는 성에 대한 자유로운 배경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적인 해석과 다른 노선을 주장하지만, 아가서에 나타나는 남녀 간의 사랑을 ‘에텐으로의 회복’으로 본다는 점에서 여전히 알레고리적인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아가서 2장에 설정되어 있는 정황은 매우 인상적이며 무엇보다도 고대의 헬레니즘적 파라클라우시튀론(*para klausoi thyron*)의 모티프를 담고 있다(아 2:8-17).²⁴⁾ 이 모티프가 암시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문의 장르를 낭만적인 사랑의 노래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아가서 2장의 이야기를 한 청년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자유로운 사랑을 위해 젊은 여인을 초청하는 정황으로 이해한다면 아가서의 신학적 깊이를 간과하는 것이다.²⁵⁾ 지금까지의 연구사는 아가서를 ‘사랑의 노래’로 진단하면서 ‘정경 속에 속한 노래인가’, ‘에로틱한 사랑의 개별적인 노래인가’의 양자택일의 기로(岐路)에 서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팽팽한 대치(對峙)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아가서 구조와 주제를 결정하는 장치(*divices*)가 ‘사랑의 노래’라는 점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아가서를 ‘에로틱한 사랑의 개별적인 노래’로 보면서, ‘성문제’에 대한 경직되고 굳어버린 이스라엘의 분위기에 저항하는 요소를 본래적인 배경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기존 연구문제와 연구 방법이 제시하는 아가서에 관한 기존 학술지식은 본문의 원래적 역사적 의미를 찾으려는 관심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 이론 및 원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진단하여 그 한계를 지적하고, 그것을 근거로 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다.

160.

- 24) G. Gerleman, *읽기*, 123; 비교, E. Burck, “Das Paraklausithyron.” *Die Entwicklungsgeschichte Gymnasium* 6, (1932) 186–200; F.O. Copley, “Exclusus, A Study in Latin Love Poetry”: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Monogr.* 17 (1956).
- 25) E. Zenger u.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Berlin : W. Kohlhammer GmbH, 1995), 346; 두안 가렛 폴 R. 하우스/채전석 옮김, 『아가 예레미야애가』, WBC 23, 33: 아가서의 신학적인 주제와 관련하여 항상 반영되는 문제는 쿨(C.Kuhl)의 견해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아가서 2장에 설정되어 있는 연인들의 관계는 ‘불러냄’(Aufruf)의 관계이다.²⁶⁾ 2장 8-17절에서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는 자’와 이를 지켜보고 있는 여자의 상황이 펼쳐진다. 본문에서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는 자’, 한 청년이 여자를 불러내고 있다(아 2:8-9). 여자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는 여자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그는 여자를 볼 수 없고 그녀와 만날 수 없다.²⁷⁾ 두 연인들 사이에는 ‘우리 벽’(חֲבֵלֵנוּ, 코트레누)과 ‘창살’(חַלּוֹן, 할론)이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은 다양한 상황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²⁸⁾

차일즈(B. S. Childs)는 아가서의 저자가 히브리 가족의 가부장적 질서를 그 당시 사회 질서의 한 부분으로 소개하며 그 안에 담겨있는 내부적인 비밀을(Geheimnis) 풀고 있다고 지적한다.²⁹⁾ 이처럼 차일즈는 알레고리적 해석과 축자적 해석을 넘어서고 있다. 동시에 아가서는 부부 혹은 연인이 된 남녀의 사랑에 대한 즐겁고 비밀스러운 본성(Natur)에 관한 지혜의 반영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³⁰⁾

두 연인들 사이에 ‘벽과 ‘창살’이 가로 놓여 있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2장 10절에서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는 자’는 여인을 동산으로 초대하고 있다. 10절에서 남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여자의 표현의 방식이 눈에 띈다.³¹⁾ 여기서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는 자’는 ‘일어나라’(קוּמִי, 쿠미)와 ‘가자’(לֵךְ, 레키)의 두 가지 명령문으로 여자를 불러내고 있다.³²⁾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어나라’와 ‘가자’의

26) K. Butting, *윇글*, 122; 비교, F. Breukelman, *Bijbelse Theologie Deel 1, 2 twlrwt De theologie van het Boek Genesis. Het eerstelingschap van Israel tenidden vande volkeren op de arrde als thema van "het boek van deverwekkingen van Adam, de mens"*, Kampen 1992, 74.

27) P. J. Griffiths, *Song of Songs*, Grand Rapids Brazos Press 2011, 66.

28) 비교, M.D. Goulder, *The Song of Fourteen Songs*, JSOT 36, Great Brintain 1986, 23.

29) Brevard,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London 1987), 574-579.

30) 윇글; K. Butting, *윇글*, 118-119.

31) R.S. Hess, *윇글*, 91.

32) O. Keel, *윇글*, 100.

두 명령문은 대부분 성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연합하며 나타나며(삼하 13:15; 왕상 14:12; 왕하 8:2; 미 2:10), 기존의 상황과 환경과 운명으로부터 ‘절대적 단절’을 의미한다.³³⁾ 우리는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는 자’의 환경을, 마카베오 하권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마카베오 하권 3:19), 젊은 여인들의 자유롭지 못한 폐쇄적인 사회적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⁴⁾ 2장 10절의 명령문, “일어나서 함께가자”는 동일하게 13절에서도 나타난다.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는 자’의 거듭되는 불러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인은 3장 2절에서 1인칭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코호타티브 형식으로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는 자’에게 “내가 일어나리라”(אֲנִי הֹמְתָהּ, 아카우마 나)라는 표현으로 응대하고 있다(비교. 아 5:5).

아가서에는 현실과 ‘이상’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연인들의 삶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연인들이 서로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강탈(Raub)과 착취(Ausbeutung)가 없이 서로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동산을 소망한다.³⁵⁾ 여기서 우리는 아가서 2장의 청년은 실제로 ‘불러냄’을 통해서 실존적 위협 속에 있는 여인의 해방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아가서의 연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동산을 회복시켜 나아간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0절에서 남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여자의 표현의 방식은 중요하다.³⁶⁾ 청년의 불러냄의 행위를 ‘인용’을 통해서 나타내는 여자의 표현방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 낼 수 있다. 키일(O. Keel)이 그의 연구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청년의 초대에 여자는 그들의 동행의 장소를 묻는다.³⁷⁾ 그리고 아가서 2장 10

33) P. J. Griffiths, *Song of Songs*, Grand Rapids Brazos Press 2011, 67.

34) K. Butting, *윇글*, 128.

35) H. W. Wolf, *Weg Weisung, Gottes Wirken im Alten Testament*, (München 1965), 163.

36) R.S. Hess, *윇글*, 91.

37) O. Keel, *윇글*, 100.

절의 여인의 간접적인 질문은 17절에서 ‘아름다운 동산’에 관한 묘사로 응답되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가서 전승을 새롭게 들을 수 있다. 연인들의 사랑은 그들의 ‘현실과 현재’로서 축제가 된다. 아가서의 연인들은 자유와 평화의 길의 선구자가 되고 있다. 2장 10절의 연인의 외침 ‘일어나라’와 ‘가자’(아 2:10)로 제시되는 테마, 술람미 연인의 불러냄은 아가서 3장에서 술람미의 장엄한 탈출(Auszug)로서 그녀의 비전으로 변화되고 있다.

아가서 2장의 ‘불러냄’의 관계(아 2:10)와 창세기 2장의 ‘에제르 케네그도’의 관계(창 2:18)을 재해석하고, 에덴의 회복과 상실에 작용하는 매개체 ‘불러냄’과 ‘에제르 케네그도’가 제시하는 사회적 관계성을 진단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회적 관계 속에 발휘해야 하는 중요한 ‘에제르 케네그도’ 기능은 뱀의 유혹이라는 고난의 상황 속에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는 그들의 낙원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아가서 2장에서 술람미와 그의 연인의 공동체는 이와 비교된다. 아가서 2장에서 술람미의 연인은 그녀를 자유롭지 못한 폐쇄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불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의 불러냄과 여인의 결연한 의지는 서로 조화를 이루며 그들의 정원의 회복을 암시한다. 아가서 2장의 겨울 정원은 연인들의 ‘열린 동산’의 비전으로 나아간다.

3. 아가서 2-4장과 창세기 12장과의 대화

아가서 2-4장의 청년의 ‘불러냄’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동일한 핵심어 ‘할라흐’(הלך)를 사용하고 있다. 아가서 2-4장에서 연인들의 낙원 회복의 이야기는 2장 10절의 명령형 동사, “가라”(לך, 레키)를 통하여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름의 사건과 서로

대화할 수 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는 자’는 청년은 명령문, ‘일어나라’(קוּמִי, 쿠미)와 ‘가자’로 여자를 불러내고 있다.³⁸⁾ 그리고 이 명령문은 13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동일한 모티프, ‘할라흐’(הֲלַחַח)를 가진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소명이야기이다. 이 양자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부름의 사건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비교 분석하여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조명해 볼 수 있을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으며 이들의 현상을 통해 우리는 고난 받는 자의 사회적 관계성을 해석하는 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1)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사라의 침묵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전개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הֲלַחֲךָ, 레호-레하)고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포괄한다.³⁹⁾ 우리는 창세기에서 3인칭 남성 단수의 형태로 이루어진 “가라”라는 명령문의 독특한 언어의 조합을 두 번 들을 수 있다.⁴⁰⁾ 창세기 12장 1절과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 “가라”라는 명령문으로 요구하고 계신다.

38) O. Keel, *읽기*, 100.

39) 비교, F. Breukelman (1992) 740이하.

40) 소위 이와 같은 “3격의 용법”(Dativus ethicus)은 -명령형 다음 2인칭 어미를 가진 - “행위를 위해서 언급된자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한다.” W. Schneider, *Grammatik des biblischen Hebräisch*, 217, zit. nach F. Breukelman (1992) 102. 동일한 언어조합의 다른 경우는: 출 18:27; 수 22:4; 삼상 26:11-12; 렘 5:5; 아 2:10, 11, 13; 4:6; 창 21:16,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Part III, From Adam to Noah, Genesis VI9-XI32)*, (Paperback 1984) 310f.

이와 관련하여 부팅(K. Butting)은 그의 연구 논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과거’(창 12:1)와 ‘미래’(창 22:2)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그곳으로부터 ‘떠남’을 요청 받는다고 이해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 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취해서(קַח אֶת-יִצְחָק, 카흐-나 에트-비즈카), “가라”(לֵךְ-לְךָ, 레흐-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을 요구한다(창 12:1). 선조들의 세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그의 미래가 되는 세계, 후손들의 세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그에게 요청한다(창 22:2).⁴¹⁾

물론 본 논문의 관심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 제한한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은,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낸 자이다”(창 15:7)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아브라함의 출발과 떠남은 하나님이 지시 할 땅으로 입성을 의미하며, 과거와 삶으로부터 해방을 말한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1-9절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후, 10절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치명적인 위기가 주어진다. 특별히 사라에게 위기의 상황이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부름 이후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분석하여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조명해 보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간다. 10-13절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집트에서 만나게 될 위험에 관해 이야기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13절). 이 이야기의 전말은 아브라함의 예견이 얼마나 정확한 것이었는지를 생생히 기술해 준다.

사라의 위기에 관한 이야기 중심에 이집트의 사회적 규범과 조직 그

41) M. Buber, Schriften zur Bibel, Muechen/Heidelberg 1964, 892.

리고 제도가 표현되어 있다. 이집트는 권력을 가진 자의 힘이 지배하는 땅으로 묘사되고 있다(창 12:12). 그곳은 아름다운 여자에 대하여 주저함없이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는 땅이다(창 12:15).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무질서의 파괴적인 폭력이 이집트에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파라오에게서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이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아내 사라를 이용함으로써 해결한다. 사라를 내어줌으로 자신의 목숨을 보호한다.⁴²⁾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배신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⁴³⁾

11절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화의 상황을 보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듯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라는 이에 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⁴⁴⁾

사라는 왜 침묵했을까? 가뭄으로 인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려간 이집트는 또 다른 형태의 목숨의 위태함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목숨의 위태함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굶주림 해결 방법은 자기 아내를 팔고 얻어진 것 아닌가? 사라는 여기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침묵하는가?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풀어낼 방법이 없었을까? 아브라함이 일방적인 아브라함의 지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라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실패이며 동시에 사라의 실패이다.

권력을 가진 자의 힘이 지배하는 땅에서(창 12:12), 아름다운 여자 사라에 대하여 주저함없이 소유권을 요구하는 파라오(창 12:15)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저항 없이 내어주고 이용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파괴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는 자신의 아내를 지킬 수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 권력의 무질서에 편승하는 아브라함에게 저항하

42) J. Scharbert, *Genesis*, Echter Verlag 1986, 130.

43) 게르하르트 폰 라트, *뫼글*, 182; J. Scharbert, *뫼글*, 130.

44) 비교, C. 베스터만, *뫼글*, 165.

지 않는 사라는 자신을 지킬 수 없었다.⁴⁵⁾

2) 술람미의 탐화(探花)

아가서 2장에서 청년은 여인을 ‘불러냄’으로 실제로 실존적 위협 속에 있는 여인의 해방을 도모한다. 아가서 2장의 겨울 정원을 4장에서 ‘열린 동산’으로 이해하며, 4장에서 ‘연인들’의 파괴된 사회구조가 회복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사회 구조가 회복되고 그들이 낙원을 재발견 한 것이라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신학적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 먼저 문학적 구조를 들여다보자. 아가서 2장 10-14절에서 여인은 그의 연인의 불러냄을 인용구를 사용하여 그녀를 향한 연인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16-17절에서 술람미는 연인과의 결속력을 표현하며,⁴⁶⁾ 동시에 멀리 있는 그의 연인에 대한 간절함을 이야기한다.⁴⁷⁾ 강한 결속력을 주장하는 술람미의 고백 속에 오히려 그의 상실감이 묻어있다. 이처럼 두 단락, 아가서 2장 10-14절과 16-17절은 각각 서로 다른 상황들이 표현되고 있다. 여기 15절은 독립적인 노래 혹은 노래의 일부분으로서⁴⁸⁾ 이 두 단락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단락의 서로 다른 상황 이야기 사이에 15절의 독립적인 노래를 위치시킴으로써, 이 두 상황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여인 술람미는 멀리 있는 그의 연인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술람미는 소망을 품는데 머물지 않는다. 아가서 3장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찾기 위한 술람미의 힘겨운 행보가 시작된다. 연인의 불러냄 ‘일어나라’와 ‘가자’(아 2:10)로 제시되는

45) J. Scharbert, *윳글*, 131.

46) *윳글*.

47) P. J. Griffiths, *윳글*, 75.

48) G. Gerleman, *Ruth Das Hohelied*, Neukirchener Verlag, Neukirchen 1965, 126-127.

테마는, 아가서 3장에서 술람미의 탐화(探花)로 변화되고 있다. 술람미의 탐화는 위험한 어둠속에서 진행된다(아 3:1-5). “밤에 나의 침상에서”(עַל-מִשְׁכְּבֵי בְלִילוֹת) , 알-미셋카비 발라르트)라는 표현은 단절의 장소를 특징짓고 있다. 여인은 연인과의 단절을 인식하며, 일어나 거리로 찾아 나서므로,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아 3:2). 사랑하는 자를 찾아 성중을 돌아다니는 술람미는 순찰하는 야경꾼과 맞부딪친다. 여기서 여인은 순찰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아 3:3).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렬해진 그녀의 열망은 그를 만날 수 있도록 한다.⁴⁹⁾ 여인은 사랑하는 자를 찾아 성중을 돌아다니며 마침내 그를 찾아 “어머니 집”(אֵל-בֵּית אִמִּי, 엘-베트 임미)으로 데려 온다. 여기서 ‘나의 어머니’(אִמִּי, 임미)는 여인, 술람미의 미래의 모성애(Mütterlichkeit)와 여성적 본질(Weiblichkeit)을 의미한다.⁵⁰⁾ 이를 통해서 술람미의 탐화(探花)의 절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를 확증하고 있다.

이제 3장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자! 술람미의 탐화(探花)는 장엄한 비전으로 수용되고 있다. 3장 6-8절은 결혼식을 위한 노래이다. 1장 1절에서 나타난 솔로몬은 3장 후반부에서 자유와 소망의 결정적 인물로 나타난다(아 3:6-11). 왕의 결혼식에 관한 보고는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연인을 찾는 과거(첫 번째)의 장면과 대조를 이루며, 동시에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아 3:1-5). 첫 번째 단락에서(아 3:1-5) 여인이 출발할 때의 상황이 침실이며, 연인과의 단절 극복을 위한 노력은 홀로 진행되었다. 이와는 달리 두 번째 단락에서(아 3:6-11) 그녀의 출발은 안전 기관(Sicherheitsorganen)과 동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첫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는 장면과 매우 대조적이다. 사절단들(Boten)은 군사적으로 무장한 신랑의 친구들이다. 나라의 근위대

49) G. Krinetzki, *Hoheslied*, Echter Verlag 1986, 14.

50) 윗글, 15.

가 호위하는 솔로몬왕의 가마에 집중하고 있다(아 3:7). 신랑은 그들의 도움으로 그의 신부를 '밤의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한다. 그는 신부를 밤의 악령으로부터 보호한다(Tob 6:14-15; 비교. 시91:5).⁵¹⁾ 그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은, 8장 6절 후반부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사랑이다. 서로의 사랑은 이 사랑을 위한 선택(Hingabe)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 3장 10절 이후의 노래는 결혼식의 기쁨을 노래한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칭송하며 노래하는 결혼식의 노래는 신부의 순결함(Heiliegen)를 나타내는 수식어로 채운다(아 3:6-8).⁵²⁾

여기서 아가서 3장의 구조를 들여다보자! 아가서 3장의 구조는 매우 독특하다. 1-5절은 단절의 장소를 특징짓고 있는 "밤에 나의 침상에서" 여인은 연인과의 단절을 인식하며,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술람미의 탐화의 행보는 5절에서 절정에 이르고, 6절 이후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두 연인의 결혼식으로 스토리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6절의 수사 의문문에 주목할 수 있다. 결혼식을 위한 행렬을 관찰하는 상황에서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아 3:6)" מִי זֹאת עֹלָה מִן־הַמִּדְבָּר (미 쯔트 올라 민-함미드바르)에 관한 질문이 제시된다. '이 여자가 누구인가'(מִי זֹאת) 표현에서 '쯔트'는 여성형 지시대명사이다. 3장 6절의 의문문은 비밀스러운 동승자(Insassin)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지적하며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유인해내고 있다. 3장 6절의 의문문은 전반부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다니며 연인과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술람미를 기억시키며 그녀와 그녀의 삶의 적극성을 확인시킨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술람미가 4장에 나타나

51) 윗글.

52) 윗글, 16.

고 있는 ‘열린 정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장 6절의 표현은 6장에서 10절에 “이 여인이 누구인가?”(מי זאת, מי צוֹט)라는 동일한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녀는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흰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표현으로 나타난다(아 6:9-10). 술람미의 행보는 모든 사람의 칭찬의 대상이 된다: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어머니의 외동딸,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귀엽게 기른 딸, 아가씨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가서 2장에서 ‘불러냄’의 과정 후 4장의 ‘열린 동산’을 회복하기까지 중간 교량 역할을 하는 아가서 3장에서 술람미의 적극성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극성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들 두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역추론하여 어떤 신학적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다. 아가서 2-4장에서 연인들의 낙원 회복의 이야기와 창세기 12장에서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동일한 모티프를 가진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결론을 향하여 중요한 시점에서 서로 다른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세기 12장의 경우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후, 10절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에 위기가 주어진다. 특별히 사라에게 위기의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은 권력을 가진 자의 힘이 지배하는 땅에서(창 12:12), 아름다운 여자 사라에 대하여 주저함없이 소유권을 요구하는 파라오(창 12:15)에게 굴복하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또 다른 형태의 파괴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폭력에 침묵하는 사라가 만들어가는 사회적 관계 깊은 상흔이 배여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아가서 3장에 사랑하는 연인을 찾기 위한 술람미의 힘겨운 행보가 나타나 있다. 3장에서 보여주는 술람미의 탐화의 행보는 파괴적인 폭력 앞에 침묵하는 사라의 모습과 구별된다. 사랑하는 연인의 부재로부터 느끼는 고독과 두려움(아 3:1), 홀로 진행되는 탐화의 행보 속에서 갖는 회의와 한계(아 3:3), 순찰하는 야경꾼들의 사회

적인 무관심과 냉대로 인한 좌절과 절망(아 3:1), 이처럼 폭력으로 다가오는 극한 상황에 직면하여 솔람미는 침묵하지도 자신의 탐화의 행보를 중단하지도 않았다(아 3:4). 솔람미는 청년의 ‘불러냄’을 단초로 해방을 이루어낸다.

4. 나가는 말

본고는 고난 받는 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관계성(social relationship)을 살피고 그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찰하였다. 창세기 2장 18-25절에 나타나는 ‘돕는 자’(עֵצֶר, 에제르) 개념은 창세기 2-3장의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불순종의 사건 중심에 위치하며 두 사건을 연결하는 신학적 주제로 기능한다. 뱀의 유혹이라는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하와에게 아담이 수행해야 하는 ‘돕는 자’의 기능 상실은 그들 공동체 에덴이 낙원의 의미를 상실케 하고(창 4:12), 더 나아가 에덴을 깊은 상흔이 베여 있는 어두운 동산(창 2-4장)으로 바뀌게 한다. 그러나 아가서 2장에서 고난 받는 여인의 처소이며, 한 여인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나타나는 겨울 ‘정원’은 솔람미를 불러내고 있는 연인의 청원으로 ‘열린 동산’에로의 회복이 발아되고 있다.

아가서 2-4장의 청년의 ‘불러냄’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동일한 모티프, ‘할라흐’를 가진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신학적 결론을 향하여 가고 있다. 창세기 12장의 경우, 권력을 가진 자의 욕구가 질서와 상식으로 통하는 이집트 땅에서(창 12:12), 아름다운 여자 사라에 대하여 주저함없이 소유권을 요구하는 파라오(창 12:15)에게 아브라함은 굴복하고 또 다른 형태의 아브라함의 폭력에 사라는 저항이 아니라 침묵으로 굴복한다. 그러나 솔람미의 탐화(探花)의 행보는 사라의 소극적 침묵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아가서 2장에서 ‘할라흐’로 시작되는 정원의 회복은 아가서 3장에 나타나는 솔람미의 장엄한 비전을 통

해서 이루어진다. 술람미와 그녀의 연인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벽’(הַיִּבֵּשׁ, 코트레누)과 ‘창살’(חַלּוֹן, 할론)이 이미 암시해주는 것처럼, 술람미의 겨울 ‘정원’이 ‘열린 동산’으로 회복되기 까지 위기의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술람미는 폐쇄적인 사회적 구조인 기존의 상황과 환경과 운명으로부터 해방을 감행한 것처럼 고난 앞에 저항한다. 술람미의 고난과 위기의 상황은 연인의 불러냄과 술람미의 탐화(探花)의 행보를 통해서 동산의 회복이 현실화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서 창세기 2장의 에덴의 주인공들이 그들의 낙원을 상실한 원인과아가서의 연인들이 그들의 겨울 정원을 ‘열린 동산’으로 구축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 중요하게 작동하는 사회적 관계성이라는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실존적인 위기와 고난 앞에 ‘에제르’의 기능과 ‘불러냄’의 기능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동시에 창세기 12장에서 권력이 지배하는 삶의 막다른 골목(Sackgasse)에서 해방을 도모하지 못하고 침묵한 사라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아가서 3장의 술람미의 탐화(探花)의 행보는 겨울 정원을 ‘열린 동산’으로 구축할 수 있었던 두 번째 근본적인 이유로 자리매김한다. 고난 받는 자의 적극성이다. 고난 받는 자의 적극성이야말로 고난 극복의 동력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5. 참고 문헌

강성열, 『창세기 강해』,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박지은, “이상한 여자를 찾아서: 아가와 잠언의 여성읽기를 통한 이원론적 여성관의 재조명”, 『구약논단』 47집 (2013년 2월), 157-182.

베스터만, C., 『창세기 주석』, (강성열 옮김), (한들 1998). 원제 C.

- Westermann, Genesis 1-11 (vol. 1), (Fortress Press 1994).
- 김영진, 『크투빔 성문서 연구』 (한들출판사 2007).
- 김영모 홍금자 김진이,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고현 출판사 2000).
- 앤드류 레스터, 『희망의 목회상담』, (신현복 옮김),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3). 원제 Lester, Andrew D., *Hope i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st edition (April 1, 1995).
- 윌리엄 오스웨이트, 『새로운 사회과학철학』, (이기홍 옮김), (한울아카데미 1995). 원제 Outhwaite, William, *New philosophies of social science* (Palgrave Macmillan 1987).
- 웬햄, 고든., 『창세기 1-15』, WBC 1, (솔로몬 2001). 원제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1987).
- 우석훈, 『나와 너의 사회과학』 (김영사 2011).
- 이경숙, 『생존과 희망의 구약성서』 (대한 기독교서회 2014).
- 이유미, 『아가의 반전(反轉)의 신학』, 「구약논단」 52집 (2014년 6월), 156-185.
- 폰 라드, 게르하르트., 『창세기』, (한국신학연구소 역), (한국신학연구소 1983). 원제 von Rad, Gerhard, *Genesis - A Commentary* (Old Testament Librar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Revised ed. edition 1973).
- 차준희, 『창세기 다시 보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최옥채 박미은 서미경 전석균 공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2002).
- Buber, M., *Schriften zur Bibel*, (Muechen/Heidelberg 1964).
- Brändle, W. "Das Ende der Theodizeefrage?", M. Nüchtern, ed.,

- Warum lässt Gott das zu?* (Lembeck, Frankfurt 1995).
- Breukelman, F. *Bijbelse Theologie Deel 1,2 twlrwt De theologie van het Boek Genesis. Het eerstelingschap van Israel tenidden vande volkeren op de arrde als thema van "het boek van de verwekkingen van Adam, de mens"*, Kampen 1992, 74.
- Burck, E. "Das Paraklausithyron", *Die Entwicklungsgeschichte Gymnasium* 6, (1932) 186-200.
- Butting, K. *Die Buchstaben werden sich noch wundern: Innerbiblische Kritik als Wegweisung feministischer Hermeneutik* (Erev-Rav 1998).
- Carmody, D.L., *Biblical Woman: Contemporary Reflektions on Scriptural Texts* (Crossroad New York 1988).
- Cassuto, U.,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Part II). From Adam to Noah. Genesis VI9-XI32 (Paperback 1984).
- Copley, F.O. "Exclusus. A Study in Latin Love Poetry",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Monogr. 17* (1956).
- Crüsemann, F., "„Im Netz. Zur Frage nach der „eigentlichen Not“ in den Klagen der Einzelnen", R. Albertz, F.W.Golka and J.Kegler ed., *Schöpfung und Befreiung* (Stuttgart, 1989).
- Childs, Brevard. 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London 1987).
- Gerleman, G. *Ruth Das Hohelied, BK XVIII., Neukirchener Verlag* (Neukirchen 1965).
- Goulder, Michael D. *The Song of Fourteen Songs*, JSOT 36, (Sheffield 1986).

- Griffiths, P. J., *Song of Songs* (Grand Rapids Brazos Press 2011).
- Gunkel, H., M.E. Biddle, trans., *Genesis*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 Keel, O. "Deine Blicke sind Tauben. Zur Metaphorik des Hohen Liedes", *Stuttgarter Bibelstudien* (Stuttgart 1984).
- _____, *The Song of Fourteen Songs*, (First Fortress 1994).
- Hess, R.S., *Song of Songs* (Baker Academic 2005).
- Heinevetter, H. -J., "Komm nun, mein Liebster, dein Garten ruft Dich!" *Das Hohelied als programmatische Komposition*. Athenäum Monographien. Theologie, Bd 69. (Frankfurt a. M. 1988).
- Krinetzki, G., *Hoheslied* (Echter Verlag 1986).
- Patton, John *Pastoral Care in Context: An Introduction to Pastoral Care*, Westminster/John Knox Press Louisville, Kentucky 1993.
- Wolf, H. W. *Weg Weisung, Gottes Wirken im Alten Testament* (München 1965).
- Roland E. Murphy/ O. Carm, *The Song of Songs* (Fortress Press 1990).
- Scharbert, J., *Genesis* (Echter Verlag 1986).
- Schüle, A., *Die Urgeschichte [Genesis 1-11]*, Züricher Bibelkommentare AT 1.1, TVZ 2009.
- Wolf, H. W., *Weg Weisung, Gottes Wirken im Alten Testament* (München 1965).
- Zenger, E. u.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Berlin : W. Kohlhammer GmbH, 1995).

검색어

불리남

에제르 케네그도

고난

낙원/정원

사회적 관계성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 on Sufferer: Based on Song of Songs 2-4

Lee, Il-rye

Lecturer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Ruhr- Bochum University. Th. D.

This article investigated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 upon the sufferer and its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The concept of 'garden' (גַּן) in Song of Songs 2 reminds us of Genesis 2-3. The concept of 'helper' (עֵזֶר) in Genesis 2:18-25 is pivotal to the events of God's creation and the human disobedience in Genesis 2-3, and it function as a theological theme to connect the two events. The loss of Adam's role as a helper (עֵזֶר) for Eve, who is exposed to the temptation of the serpent, leads to the loss of their community the Garden of Eden (Gen 4:12) as the Paradise and further changes the Garden into a gloomy garden that has deep scars (Gen 2-4). However, a winter garden in Song of Songs 2, which is a dwelling place of a suffering Shullammite

www.kci.go.kr

woman and a closed place where restricts her life, begins to be restored to an 'open garden' by her lover's calling her out.

The story of lovers in Song of Songs 2-4 also helps us to understand the event of Abraham in Genesis 12, in particular, through the imperative verb halach (הלך). In Song of Songs 2:10, where the lover of the Shullammite woman peeping through the windows calls her, he uses the imperatives "arise" (קוּמִי) and "let's go" (לֵבִי). In Genesis 12:1 also, God requests Abraham to leave his hometown, relatives, and father's house and "go" (אֵל) to the land that He will show him. The two stories that have the same motive halach, however, gradually reach different theological conclusions. In Egypt where the desire of the powerful is at once order and commonsense (Gen 12:12), Abraham succumbs to Pharaoh who wants to possess the beautiful woman Sarah without hesitation (vs. 15), and Sarah also succumbs to Abraham's different kind of violence to her in silence without opposition.

On the contrary, the behaviour of the Shullammite woman is differentiated from Abraham and Sarah's choice. The restoration of the garden, which starts with halach (הלך) in Song of Songs 2, is realized by the great vision of the Shullammite woman in Song of Songs 3. As a wall (כָּתֵל לִנְי) and a window lattice (חַלּוֹן) that lay across between the Shullammite woman and her lover already suggest, some situations of crisis await before the winter garden is restored to a 'open garden.' However, she resists the existing circumstances and destiny of the closed social structure. Her suffering and risky situation are overcome by her lover's calling her out and her answering to his calling, and the garden is finally restored.

Keywords

calling

ezer kenegdo

suffer

paradise/garden

social relationship

- 투고일: 2016년 10월 14일
- 심사일: 2016년 10월 19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11월 3일